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조정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좌로부터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 이연풍 광주·전남도회 회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회장, 성창진 경영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9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이상일 회장, 이연풍 광주·전남도회 회장,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 성창진 경영부회장, 조현일 정책본부장이 참석하여 조정식 위원장에게 기계설비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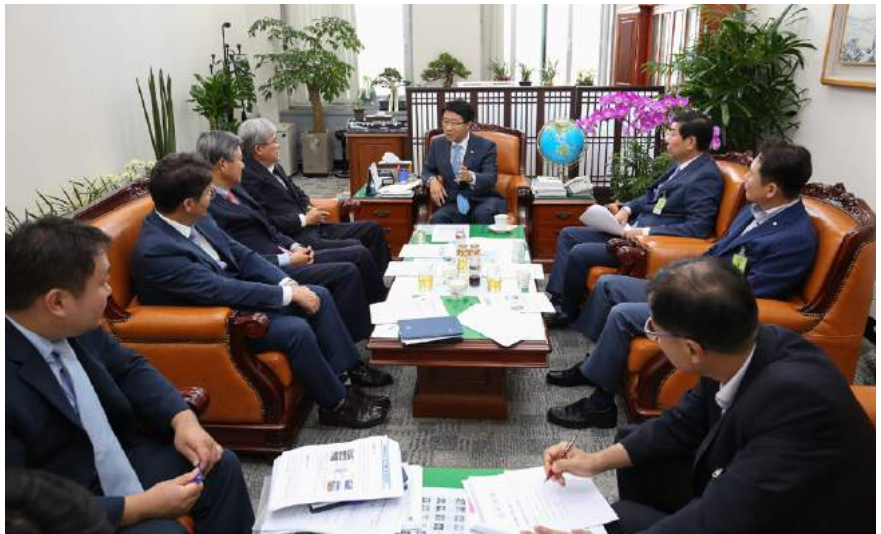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는 일반건축물 15~20%, 병원·연구소 20~30%, LCD·반도체 등 플랜트공사 50% 이상의 공사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CC)에서는 전체비용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어 고품질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30조원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97%인 약 215조원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계설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기계설비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절감정책 마련을 비롯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기계설비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공사용자재 관급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오늘 협회의 건의 내용을 듣고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알았다”면서 “기계설비업계의 건의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해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계설비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상일 회장과 조정식 위원장

1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설비는 토목, 건축과 별도로 독립된 학문 체계 및 시공기술 요구
- 기계설비 에너지 사용량 연간 약 30조원으로 직접시공과 정밀시공으로 시공품질 확보만이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쇄신

- 과제로 채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가능토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행('94.6월)
- 국토부, 공공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 공문 시행('00.5.24)
- 박근혜 정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14.1.1)과 지방계약법시행령('14.11.24) 개정 시행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규정

-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시행여부 검토 의무 규정 추가
-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대상에 기계설비공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발주 활성화에 소극적임
-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녹색건축물 달성이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 기계설비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등 고질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09.4월)
-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합동)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발표('13.6월)
 - 기계설비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방식에 가장 적합한 업종임에도 발주실적은 저조함
 - ※ '15년 국가공사 11건 발주 : LH공사 대상공사 53건 중 8건, 철도시설공단 2건, 지역난방공사 1건
-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과도한 규제로 동일한 아파트 공사에서 LH공사는 주계약자공

- 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하나, SH공사는 불가능
- 공동계약은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생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에만 적용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어 공동계약 도입 취지에 위배(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은 제한 없음)
 - ※ 국가공사는 공사금액(300억원 이상)과 입찰방식(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공사는 공사금액(2억원~100억원)

■ 건의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제한규제(공사금액, 입찰방식) 폐지
-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전면 시행
 - LH공사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전면 발주

3 기계설비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하여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등 10여개 직업훈련 지원 사업 실시(고용보험법 제27~31조)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숙련기술 장려사업 등 직업훈련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에 필수적인 CAD(Shop

- drawing) · 공무 훈련과정은 없는 실정임
- ※ 배관, 용접 인력양성을 한국폴리텍대학 31개 캠퍼스 중 일부 캠퍼스에서 숙련기술 장려사업(국비직업훈련)으로 양성하고 있으나 기능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 기계설비건설 현장의 필수 인력인 CAD, 공무, 배관분야 전문인력 부족 심화로 구인난과 과도한 임금상승에 의해 경영난 가중
- ※ 조달청은 올해부터 공공설계 발주에서 '빌딩 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3D 설계 의무화로 CAD 인력양성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건의사항


- 기계설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직업 훈련 지원 필요
-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CAD, 공무 훈련과정 신설과 배관 훈련과정 양성인원 확대 적극 지원
- ※ CAD · 공무 훈련과정 신설, 배관 훈련과정 양성인원 확대

4 공사용자재 관급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청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건설사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종합공사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전문 3억원) 공사로서, 해당제품이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함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7개) 중 기

계설비 품목 : 스테인레스물탱크,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밸브, 유량계, 자동제어반, PVC관 등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기계설비 공무원가중 30%를 차지하여 매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인원감축, 폐업 등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가중
- ※ '14년 기계설비 공사규모별 계약실적(12조원) 중 3억원 이상이 75%(9조3천억원) 차지
- 공사용자재 관급은 중소기업체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물품을 직접구매하여 관급하는 제도이나, 시공이 수반되는 제품을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조업 등록을 요구하여 대다수 중소 기계설비공사업체는 입찰 참여자격이 제한되는 등 일부업체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어 법 취지에 위배
- ※ 국민권익위원회,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12.10.22)
-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은 시설공사업법 위반, 시공품질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매출액 감소 등 중소 시설(전문)업체의 경영환경 악화와 '동일 중소기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민원 발생
- ※ 자재(설치조건부)로 발주되는 기계설비 주요공사 : 공기조화기 설치 · 교체공사 

■ 건의사항

- 전문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을 7억원 이상 공사로 범위 축소(현행 3억원)
-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 공사로 발주 요청


회장단회의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9월 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자격 관련 정관·규정 개정 추진 검토 △준회원제도 도입 검토추진 △기계설비건설 2016 Work-Shop 개최(안)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장단회의에서는 유관단체에 비해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상실 등 미흡한 관련 규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협회 정관의 '선출·선임직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회원사에 대한 협회 정회원 가입 유도 등을 위해 준회원 제도 관련 규정 신설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개최 예정인 워크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밖에 회장단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 조달청장과 4개 시설공사업 단체 간담회
- 소방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제도개선 추진
- 직접시공제 확대 입법발의 철회 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협회 대응
-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발표 



협회는 지난 9월 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및 협회 대응 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9월 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및 협회 대응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협회 성장진 경영부회장은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정착과 기계설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교육을 통해 협회 임·직원 모두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여 대내외 활동 및 대관활동, 원활한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서일의 홍성칠 대표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구체적인 사례 등 협회 및 회원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홍성칠 변호사 약력

- 2016.09.01 법무법인 서일 설립(현)
- 2012.11.~2015.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2012.11.~2015.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2012. 법무법인 로직 대표변호사
- 2012.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0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2003.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관 연수
- 20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2.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시설공사업 단체장 간담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등 시설공사업 4개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공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국가공사의 적격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을 현 개선안(BBB-)보다 지속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시설공사업체의 공사수주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협회의 추진사업 및 활동 정보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상일 회장

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등을 위해 배치되는 기술자 기준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전기협회 장철호 회장은 문화재에 포함된 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건의 내용을, 정보통신협회 문창수 회장은 4개단체의 연합회 구성 계획에 대해 의견을 밝혔으며, 소방협회 최영웅 회장은 소방 기술사 현장 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중복관리가 가능토록 국민안전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 단체는 일괄발주될 예정인 국회 스마트 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가 분리발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설공사업 4개 단체는 지난 9월 12일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공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토의했다(사진 오른쪽 세 번째 이상일 회장, 두번째 성장진 경영부회장)

제5차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개최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유호선)는 지난 9월 2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분야(냉동공조제조업계) 당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했으며, 향후 법령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발의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 법안』을 검토했다.

또한 기계설비 위상제고를 위해 협회에서 추진 중인 YTN Science TV 황금나침반 기계설비 홍보 계획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기계설비공사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내용을 논의하고 기계설비산업 선진화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계획 등을 협의했다.


한편 해외의 기계설비건설 생산체계 및 발주제도 직접조사 연구용역을 비롯해 기계설비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자문 및 의견청취를 위한 외부인사 초청을 논의했다. 

제41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9월 28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및 조달청 조치계획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과 국토교통위 간사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2016년 조달청 설계관리 대상 건축물 주계약자·분리발주 추진, 국방부,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범공사 예정 등 발주계획을 비롯하여 경기도 및 경상북도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


정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 토론회 주제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추진하며 우리가 각 파트별로 만들었던 데이터를 종합해 논리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자료를 보기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본회(회장 이상일)와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9월 9일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아동복지 전문시설 “사회복지법인 빛나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사회복지법인 빛나라는 지난 2002년 설립되어 아동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빈곤·결손·방임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와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센터 등 아동 복지 시설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양육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규모 원스톱 아동 복지 시설 공급 확대 사업 수행 등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6년 노무강습회 개최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광주·전남도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충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0일 인천광역시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특별시회, 26일 충북도회, 27일 대전·세종·충남도회, 29일 광주·전남도회 노무강습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무강습회는 협회 노무 자문위원인 김광태 노무사(노무법인 다현)가 강의를 맡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실무 △특이형태 근로자 고용관리 △건설 사회보험 관리 △노동부 지원금 제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 등을 강의했다.

노무강습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노무강습회 개최 일정

시·도회명	개최일	장소
서울시회	9.23(금) 14:00 ~ 16:30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부산시회	10. 7(금) 14:00 ~ 16:30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대구시회	10. 6(목) 14:00 ~ 16:30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의실
인천시회	9.20(화) 14:00 ~ 16:30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
광주·전남도회	9.29(목) 14:00 ~ 16:30	5.18 교육관 1층 회의실
대전·세종·충남도회	9.27(화) 14:00 ~ 16:30	사학연금둔산회관 2층 회의실
울산·경남도회	10.21(금) 13:30 ~ 16:00	울산과학기술대 서부 캠퍼스 1공학관 201호
경기도회	10.19(수) 14:00 ~ 16:30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강원도회	10.10(월) 14:00 ~ 16:30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 대강의실
충북도회	9.26(월) 14:30 ~ 17:00	충청북도 지방기업 진흥원 제2교육장
전북도회	10.14(금) 14:00 ~ 16:30	전주뱅크빌딩 3층(세미나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토론회 참석



토론회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사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9월 22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에서 개최된 ‘건설업 혁신, 상생협력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등 건설업 종사자들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건설업 혁신대책(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에 의한 계약자 직접 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분리발주

가 의무화된 공사 이외에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 임금 지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된 하도급 체계를 계약자 직접 시공체계로 바꾸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경험과 능력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장승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박흥순 건설정책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조상구 회원정책지원실장,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정훈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 건설산업정보센터 문혁 기획총괄실장 등 패널로 참여해 견해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혁신대책 브리핑

우리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는 백종윤 회장을 비롯하여,
 정달홍 본회 부회장, 이종
 원 본회 이사, 최전남 감사,
 최두현 · 조태묵 운영위원,
 정광일 · 송득중 · 김재선 대표
 회원을 비롯해 분리발주 · 주계약
 자 공사 수주 회원사와 본회 및
 서울특별시회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플로어발언을 하는 정달홍 본회 부회장

이날 정달홍 부회장은 플로어발언을 통해
 “원 · 하도급으로 구분된 기존의 수직 · 종속적
 건설생산체계에서 조속히 탈피해야만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 안 중에, 설계서가 분리되어 있
 고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에 대하여 적극 찬성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토론
 회를 통해 협회 의견과 전
 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건설업 전반에 걸쳐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랜 관
 행으로 굳어진 수직 · 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
 평 · 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건설업의 각 분야
 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틀
 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300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9월 29일 제
 30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장
 학금 지급내규를 개정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및 임
 직원 자녀 장학생을 심의하여 선발했다. 또한 회원
 사 등산대회 개최 계획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업무 추진 실
 적 및 10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월 업무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월 업무추진 계획

- ‘제1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 참석
- 회원사 등산대회 개최
- 하반기 권역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
- 분리발주 현장 안전(품질)점검 실시
- 201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 세일 가곡의 밤 공연 관람
- 분리발주 · 주계약자 업무추진 및 수주회원사 사
 후관리 방문상담(계속)
- 비회원사 회원가입 상담 방문업무 추진(계속)


제8차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제8차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회장 박영진)를 지난 9월 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개최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에서 건의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의무화 및 분리발주 협조 공문 시행 등을 보고했으며, 회원사 복리증진을 위한 YTN 복지물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주요기관 관계자 간담회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는 2016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발표,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기재, 분리발주 현장 협회·발주처

합동 안전(품질)점검 실시, SH공사 개별난방전환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건의, 가스 재난·재해예방 복구반 서민계층 가스시설 무료보급사업 추진, 제35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실기검정) 실시, 2016년 시공능력 회원사 순위표 및 회원명부 제작·배부,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협회 추진업무를 비롯해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 단가와 지난 8월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정풍개발 김상일 차장, (주)두형엔지니어링 서해지 상무, (주)상신프렌트 장영훈 차장이 신규 회원으로 참여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제8차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를 지난 9월 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16년 가스안전 결의대회 개최



2016년 가스안전 결의대회가
지난 9월 30일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회 가스시공협회[회장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와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부산지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장재경)가 주최하는 '2016년 부산지역 가스안전 결의대회'가 지난 9월 30일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에서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가스담당자를 비롯해 가스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가스안전에 이바지한 가스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우리협회에서는 (주)중구에너지 정태영 대표가 한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받았다.



가스안전 유공자 포상
[사진 오른쪽 두번째 (주)중구에너지 정태영 대표]

장재경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지진 등의 여파로 가스사고 예방 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국제안전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가스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부합하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자”고 밝혔다. 

추석맞이 사랑나눔 성금 기탁



광주 · 전남도회 이연풍 회장
(오른쪽)과 광주 살레시오 수도
원 장동현(가운데) · 로베르토
(왼쪽) 신부, 사랑나눔 성금
기탁 후 기념촬영

광주 ·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9월 6일부터 광주 살레시오 수도원을 비롯해 천주교 가난한이들의 작은 자매회, 돈보스코 나눔의 집, 광주 사랑의 집,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 등 5곳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랑나눔 성금을 기탁했다.

이연풍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광주 · 전남도회 회원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성금을 대표로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광주 · 전남도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 전남도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 회원사의 뜻을 모아 매년 기부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춘천기계공고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강원도회 김철호 회장(오른쪽 첫번째)은 지난 9월 21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유선재 교장(왼쪽 첫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래, 황태웅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강원도회(회장 김철호)는 지난 9월 21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유선재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빌딩자동화와 3학년 김정래, 황태웅 두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철호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는 기계설비 전공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수한 전문기능인력으로 성장하여 기계설비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정래·황태웅 학생은 우수한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향후 기계설비업계에 진출해 설비분야의 엔지니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능동적인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6년 회원사 친선 체련대회 개최

강원도회(회장 김철호)는 지난 9월 26일 횡성 웰리힐리C.C에서 강원도회 회원사 대표 및 배우자 약 40여명과 서울특별시회 백종윤 회장 등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회원사 친선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김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체련대회를 통해 돈독한 교류의 정을 나누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긍정적이고 화합된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회원사간 친목과 단합을 위해 개최된 이번 체련대회에서는 (주)유로이앤씨 김원자 대표가 챔피언을, (주)건영엔지니어링 손봉일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성보이텍(주) 이철호 대표가 롱기스트를, 동주설비 이상오 대표가 니어리스트를 수상했다. 



강원도회는 지난 9월 26일 횡성 웰리힐리C.C에서 '2016년 회원사 친선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2016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시

경북도회 가스 재난·재해 예방복구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포항시와 함께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펼쳤다(사진 왼쪽 첫번째 김동수 위원, 세번째 김재우 위원장, 다섯번째부터 원정대 회장, 이원권 포항시 복지환경국장, 이두형 가스설비공사 협의회 위원장, 박규팔 위원)



경북도회(회장 원정대)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지난 9월 20일 포항시와 함께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개선사업 행사에는 원정대 회장,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 및 경북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 김재우 위원장[성도산업(주) 대표], 김동수(주)세한 대표]·박규팔(주)팔팔기공 대표] 운영위원과 포항시 복지환경국 이원권 국장이 참여했다.

경북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포항시 관내 독거어르신 155세대를 방문하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타이머 콕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했으며, 향후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가스타이머 콕은 가스 중간밸브에 장착되어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로서 독거어르신 세대의 가스 과열로 인한 화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대국민 가스 안전확보사업의 일환으로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산하 전국 시·도회의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